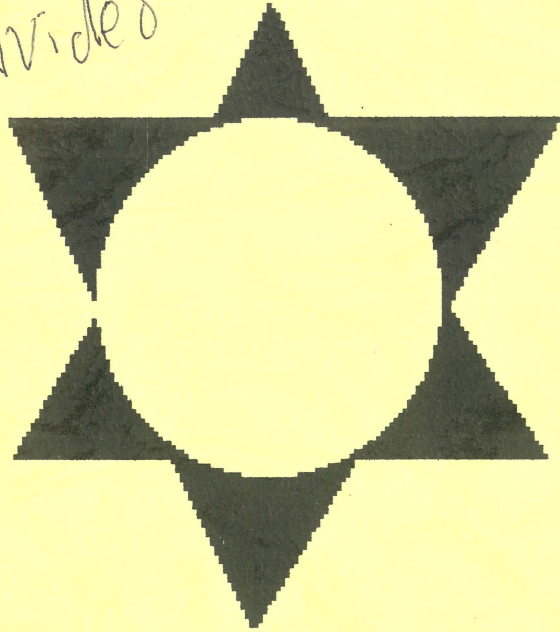


VIA AC'97 Enhanced - Audio - Controller
AV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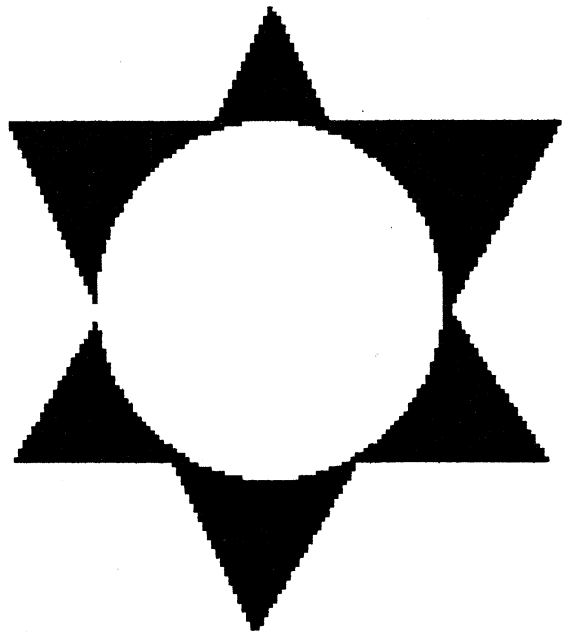


전국 서여대생대표자협의회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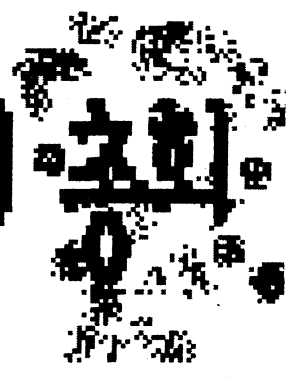
연제: 3월 30~31일

어디서: 서여대협 산하 해방광운대학교

1972년 3월 30~31일



전국 서여대생대표자협의회 주최



언제: 3월 30~31일
어디서: 서여대협 산하 해방광운대학교

☆글 심는 순서☆

여는시

임시외장 인사말

일정

회의진행세칙

전여대협 강령과 규약

예산안

총노선

보론

대표자 명단

가다 가다가

가다 가다가
눈보라 몰아치거든
허리 꺾인 억새풀로
얼었다나 가지

가다 가다가
서릿발 돋치거든
서거서거 맨발등
찍히며 가지

가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거든
돌판에 짚벼늘로
추운 잠 자고 가지

어찌꼬나 어찌꼬나
언 땅에 내 살붙이들
새도 없이 별도 없이 어둠속에
새워두고
아득히 떠나가는 긴 유형길

가다 가다가
외로움 사무치면은
짐승처럼 치받치는 통곡,
우우 밤바람으로 울며 가야지

가다가다가
나 끝내 다 못가거든
해방의 산등성이 우뚝 선 조
선술로
억!
푸른 깃발 붉은 목숨
새워나 두고 가지

가다 가다가

작년 가슴벅찬 마음으로 여학생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여대협 1기를 건설하였습니다.

건준위 6년의 역사, 선배들의 피와 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보은 김진관 석방투쟁속에서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안아왔고 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윤금이씨를 보며 주한 미군의 문제를 폭넓게 여론화시켰습니다. 또한 94년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을 벌여내면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식민지하에서 여성운동이 힘들었듯 우리들의 선배들 역시 내가 아닌 우리 더 나아가 민족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받아 안고 하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2기의 힘찬 전진을 할 때입니다. 격동기를 살아가는 청년여학도의 정신으로 나를 둘러싼 억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주민주통일 투쟁에 당당히 나서며 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럼 없는 50만 여학우의 삶의 조직으로 우뚝서야 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당당함과 자부심으로 그 한길에 서겠습니다.

2기 전여대협 임시의장

김 유경(경성대학교 총여학생회장)

★ 2기 전여대협 대표자 총회 일정

30일

- 4시 집결
- 식전 행사
- 식사
- 6시 개회
- 환영사(강은대 부총여학생회장)
- 7시 의장선출
- 중앙상임위 인사
- 9시 본회
- 서기단 임명
- 회순통과
- 보고 안건
- 간규개정 후 휴회
- 11시 창관인별 지역별 모임

31일

- 7시 기상
- 8시 식사
- 9시 본회속개
- 총노선 토론
- 1시 식사
- 2시 속개
- 총노선 토론
- 특별 결의문 채택
- 4시 폐회

전여대협 회의 진행 세칙

1. 회의 진행의 원칙

1)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집행위 인준, 회원 징계 등에 관한 것은 비공개 할 수 있다.)

2)정족수의 원칙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사고 처리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3)일(一)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지 않는다.

4)발언자유 원칙

5)다수결 원칙

6)소수의견 존중 원칙

7)일사부재 원칙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변한(표결심의의 동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변안상정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회의 불계 속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동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안건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1)대표자총회 안건 상정은 중앙상임위원회 안 외에도 대표자의 1/10 이상의 연명(규약 제18조-발의)으로 한다.

2)안건 채택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동의안은 찬반토론 없이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가 끝난 후에 있어서의 회순변경은 찬반토론없이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 1)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 2)발언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히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 3)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찬반 일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 4)발언시간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각 안에 대한 제안설명(발제) 및 토론
 -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 5분 이내
 - 의사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단 발언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의장의 제안에 의해 출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5)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표자 1/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제한한다.
- 6)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의사조정 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4.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 순서

- 1)원안만이 상정되었을 때
 - ①안건상정 ②안건발제 ③질의 및 응답 ④토론 ⑤표결(안건의 성격에 따라 표결할 안건과 결의할 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단, 의사수렴과 토론 속에서 수정안의 '의사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되면 그에 대한 표결을 한다.
- 2)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때
 - ①안건 상정 ②원안에 대한 발제 ③질의 및 응답 ④다른 안에 대한 발제 ⑤질의 및 응답 ⑥원안과 다른 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여부를 논의(중앙상임위원과 다른 안 제출자와)하고 수정안이 작성될 경우에는 즉시 표결에 들어간다. ⑦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을 때에는 찬반토론을 한 후에 ⑧선택 표결한다.

5. 그밖에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강령규약 및 개정안

전여대협 전문

전여대협은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사상과 자본의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성 실현으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전여대협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한다.

전여대협 강령

I.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I. 이천만 여성이 차별 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I.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조국을 통일한다.

I.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반민족적, 성차별적 교육과 제도를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 자주화를 이룩한다.

I.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제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 투쟁한다.

I.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 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I.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I. 백만청년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전여대협 규약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약칭:전여대협)의 규약은 강령적 요구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약칭:전여대협)의 규약은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민주집중의 조직운동을 기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약칭:전여대협)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전국 오십만 여학도의 통일 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 투쟁, 생활 투쟁적 요구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한다. 나아가 보다 높은 단결을 위해 전국총여학생회연합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본회의 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 총회에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제4조(회원규정)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대표조직으로 한다.

제5조(구성체계)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 체계, 지역단위체계, 지구단위체계.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대 여학생조직, 과 여학생조직을 가지며 본회 산하에 7개 지역, 1개 특별지구를 둔다.

1)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으로 구분한다.

2)제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특별지구로 구분한다.

3)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구성과 분화 또는 통합을 할 수 있다.(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6조(가입과 탈퇴)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위로 한다.

2)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7조(권리)본회의 회원의 본회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개진권, 결정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8조(의무)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의 실현, 결정사항의 집행, 보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포상 및 징계)

본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제1절 대표자 총회

제10조(지위)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제11조(구성)

- 1)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대표자)으로 구성한다.
- 2)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 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개정안

제11조(구성)

- 1)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대표자), 각 지역의장, 전여대협의장으로 한다.

제12조(권한)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 2)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 3)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 4)본회의 의장탄핵권을 가진다.
- 5)조직의 해산을 결정한다.
- 6)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 7)위의 권한 중 강령의 제,개정, 규약의 제,개정, 의장선출 및 탄핵, 조직의 해산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대표자총회의 결의로 중앙상임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정기대표자총회와 임시대표자총회)

- 1)정기 대표자 총회는 1년에 1회로 중앙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 2)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정기 대표자총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 총회는 매년 당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 4)정기 대표자총회는 30일전에 공고하며, 임시총회는 임시총회 1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개정안

4) 정기 대표자총회는 정기 대표자총회 15일전에 공고하며, 임시총회도 15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14조(지위)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15조(구성)중앙상임위원회는 의장과 7개 지역 지역의장으로 한다.

제16조(권한)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 2)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 3)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4)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 5)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 6)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17조(운영)중앙상임위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3절 의장

제18조(지위)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19조(권한)의장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제20조(선출)의장은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중앙상임위에서 의장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제21조(임기)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표자 총회로부터 다음해 중앙상임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4절 중앙정책위원회

제22조(지위)본회의 정책, 연구, 생산단위이다.

제23조(구성)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각 지역 정책위원회)으로 구성한다.

제24조(역할)

- 1)정책과 노선을 연구 생산한다.
- 2)본회 정책사업 전반을 총화 한다.
- 3)중앙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개정안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2조(지위)본회의 정책 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 한다.

제23조(구성)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역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 한다.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계층계급과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제5절 임시체계

제25조(지위)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총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제26조(임시의장)임시체계는 중앙상임위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체계)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운영은 정식체계로 규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사업)

- 1)계승과 혁신사업을 수행한다.
- 2)해당시기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 3)대표자 총회를 준비한다.

제5장 재정

제29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3월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로 한다.

제30조(회비)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회비의 2%로 한다.

2)특별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며 각 지역(지구)별 또는 각 학교별로 납부한다.

제31조(재정관리)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에서 관리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표자 총회에서 심의, 인준, 의결한다.

제33조(회비관련 징계)본회의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30조(회비)

1)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회비의 3%로 한다.

■ 제정안

제33조(회비관련 징계)본회의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시행세칙3(회비관련 징계)

1)기간- 임시체계발족의 기간으로부터 총회이후 한달까지로 한다.

2)기간내 미납부 하였을시 제명, 자격정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장 시행세칙

제34조(시행세칙)본회의 시행세칙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둘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35조(포상)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36조(징계)본회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정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7조(회의 성립)모든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8조(의결)제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이나 강령의 제,개정,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표결)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단 출석인원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대표자총회의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규약의 준용)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제정)본 규약은 1995년 4월 30일에 제정한다.

시행세칙1-대표자 선출

제1조(목적)본 세칙은 본회의 대표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2조(대표자)본회의 대표자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대표자)으로 한다.

제3조(위임권행사)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시행세칙2-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의장 선출을 위해 둔다.

제2조(선거방식)본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직접, 평등으로 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1)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상임위에서 중앙상임위원 1일은 선관위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중 3인으로 한다.

2)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홍보,행정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4)본회의 선관위는 선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목적)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업무와 권한)

1)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2)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정기 총회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정기 총회의 중상으로부터 선거인 명부 확인 절차를 가진다. 후보자 추천은 총회에서 확인된 선거인 명부에 명시된 자로 제한한다. 단, 투표(대표자총회)까지 선거인 명부 추가 확인을 통해 투표권을 인정한다.

3)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 경비를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재정은 선관위장과 선거본부장들 간의 협의회의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총회시 보고한다.

제7조(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한다.

제3장 의장선출

제8조(선거권과 피선거권)

1)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는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대표자 중 간선직 대표자들과 지구여대협 이상의 중앙집행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예, 회의, 문건)

제9조(후보자 및 입후보자 자격)

1)본회의 의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2)본회의 의장 입후보자는 추천서(대표자 중1/3의 추천), 자천서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1인 이상의 후보출마시 대표자는 복수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추천을 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대표자의 복수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다.

제10조(선거공고)

1)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5일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2)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제11조(선거본부구성)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지역여대협 의장을 자격을 갖는 대표자를 선거본부장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운동 및 유세)

1)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2)각 후보자는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각 지역선관위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선거유세는 대표자총회에서 1회 30분 이내로 하며 정책공약집 발간 등 기타 선거 운동은 선관위와 선거본부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당선결정)

1)본회의 의장 선출은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단독출마의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4조(보궐선거)의장이 탄핵되었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단, 의장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시에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선관위 주관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기 전여대협 예산(가안)

모든 활동의 기준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의장과 중집활동비		
의장	중앙상임위 참가비	50,000*2*9=900,000
	지역하방비	50,000*2*9=900,000
중집	지역하방비	50,000*3*9=1350,000
각종회의 참가비		20,000*3*9=480,000
일상사업비		
	복사비	40,000*9=360,000
	각종자료집	50,000*5=250,000
	우편 및 Fax	10,000*9=90,000
대중사업비		
	출범식	2,000,000
	총회	700,000
	간부수련회	1,000,000
	통일선봉대 지원비	300,000
기타예비비		1,000,000
합계		9,330,000

2기 전여대협 총노선

(중앙상임위원)

95년 평가

■ 사상적 측면

목표

여학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로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밝혀내자.

평가

약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학생운동은 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학생운동의 정확한 이론에 대한 해명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즉, 우리사회의 모순을 명확히하며 이속에서 여학우들을 자주적 주인주체로 만들어갈 여학생운동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지난 1기에서는 여학우에 특성과 본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여학우의 건강성과 자주적 여성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었다. 그러나 총노선의 수립시기에만 고민이 진행되었을 뿐 그 이후 여학우들을 자주적인 주인주체로 만들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담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여학우이 자주화를 위한 방법론적인 정책과 현시기 여성과 특수하게 여학생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성격에 대한 명확한 파악 부분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사상적인 측면에 대한 과제를 1기에 해결하지 못하였다.

여학생운동의 사상적인 내용을 해명하기 위한 내용만이 있었을 뿐 1기의 사상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잡지 않으므로 인하여 사업속에서 녹아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잡아내지 못하였다.

■ 조직적인 측면

목표

주체의 결의로 지역여대협 건설, 강화하자.

과 여학생회(부)의 강화 소모임, 학술동아리 운동

평가

주체의 결의로 지역여대협 건설, 강화하자.

- 각 지역의 구체적인 총화와 이에 대한 보장이 되지 못하였다.

전여대협의 집행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으나 지역 여대협의 총화가 중상속에서 보고만으로 그치고 지역의 처지에 맞는 지도들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 지역여대협의 강화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지역 여대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위 마련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적 상황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각 지역의 특성, 모범을 살려내는 속에서 통일적으로 풀어내지 못하였다. 각 지역의 모범이 많이 펼쳐졌었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집중되거나 이를 대중적으로 전파시키지 못하였다.

과 여회(부)의 강화

- 과여회(부)의 위상 정립, 정형창출, 모범 전파의 기치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도가 제출되지 못하였다.

소모임, 학술동아리 운동

소모임과 학술동아리를 통하여 여학생운동의 일꾼들을 발굴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정책이 생산되지 않았다.

대중적인 측면

정치투쟁 영역

목표

민족대단결을 이루어 내는데 앞장서자

-> 남북공동 연대투쟁으로 인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 막아내고 정신대 문제 해결하자.

성과

8.16 수요집회는 총화지점으로하여 진행된 정신대 문제 해결투쟁은 전국단위 여학생들의 집회를 진행하였다는 지점에서 성과적인 부분이 있을수 있다. 또한 전여대협 통선대와 여학일꾼의 정신대문제해결과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하여 전체 국민들과 학우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점이다.

한계

투쟁의 목표를 정확하게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8.16 이후 투쟁의 상들에 대한 고민을 진행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정신대문제해결투쟁속에서 조국통일투쟁의 상을 명확하게 그려내고 실천적으로 풀어 내지 못하였다.

-> 제2의 정신대 기지촌 여성을 유린하는 미군기지 몰아내고 민족자주권 실현, 통일 조국 안아오자.

미군철수 투쟁을 힘있게 벌여내지 못하고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기지촌 활동이 진행되었다. 기지촌 활동의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산지역의 기지반환운동의 활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는데 미군철수투쟁의 다양한 방도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전개되어야 하겠다. (예: 전대의 기지촌 탐방)

-> 여학우들이 일상적인 정치의식을 높여나가는 지자체 선거를 만들자.

지자체 선거에 대한 입장과 우리가 요구하여야 할것에 대한 내용은 생산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선거관으로의 결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현이 되지 못하였고 여학우들의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것에 대한 요구는 있었으나 전여대협의 차원에서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일상사업 영역

-> 학교간의 지역간의 가열찬 교류로 서로의 모범을 전파하고 대중운동의 정형을 창출하자.

농촌 활동, 기지촌 활동, 탁아 활동 등에 대한 학교간의 연대를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지역여대협, 전여대협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총체적인 평가

앞에서 평가한 영역별 평가에서 한계의 지점과 성과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전여

대협 1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각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이 평가속에서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지난 1기는 전여대협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실행해 옮기기에는 많은 객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패배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은 혁명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펼쳐가야 하는 운동이다. 평가가 패배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운동의 발전의 과정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힘차게 전망을 세우는 것이 현실에서 요구되는 자세가 아닐까한다.

선배들의 전여대협건설의 피나는 노력을 받아 안아 지난해 우리는 전여대협1기를 건설해 냈다. 비록 1년의 활동속에서 많은 발전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여대협건설로 전국 여학생운동의 단결의 구심인 조직체를 건설함으로 인하여 여학생운동의 보다 큰 전진을 앞당겼음을 우리는 커다란 자부심으로 받아안아야 할 것이다. 1기에서는 그릇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이그릇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것인가가 중요하다. 진정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학간부들만의 고민토론의 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학생운동의 험난한 길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96년 2기 전여대협 총노선

(중상안)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주적 청년여학도여!
낙관적 신심으로 무장하고
투쟁으로 전진하는
여학간부로 일떠서
여학우대중에 근거한 여학생운동의 청형창출로
전여대협 강화하고
청신대 문제 완전 해결투쟁과
반미, 반김투쟁 전면화로
민족자주권을 회복, 민족대단결의식 고취하여
통일조국건설의 길, 인간해방의 한길로 달려가자.

정치정세전망

국제정세

“자주 시대!”

냉전질서 해체이후 자국의 실리추구로 미국중심 집단안보체제가 금이가고 있으며 제국주의들간의 모순의 심화와 자주시대를 열어가는 반제자주역량의 진출로 제국주의의 군사,경제침략도 제 3세계 민중의 민족자주의 투쟁앞에 허물어지고 있다.

@ 자국 실리추구, 제국주의의 각축장

탈냉전이후 힘의 우위에 기초한 제국주의의 패권정책의 파탄으로 제나라 제민족의 실리추구의 각축장으로 되고 있다. 냉전의 해체는 미국의 힘의 약화와 제국주의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유럽연합 등을 비롯한 지역블록화 현상, WTO질서 등을 통하여 서로간의 경쟁으로 제살짜아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침략을 합법화시킨 WTO출범, 자유경쟁시대의 돌입, 북미관계 개선등 어느정도 평화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자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을때의 일이지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군사적 행동등도 마다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력을 기반으로한 경제침략과 세계지배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민족문제에 대하여 경제제재니, 중국의 무력침공의 야욕이니 하며 대만 인근해역에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를 배치시키는등은 미국의 세계지배야욕의 한 단편이라 하겠다.

@ 제국주의와 제 3세계의 모순, 자주시대의 도래

제국주의는 자국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제 3세계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고도화 하고자 하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제 3세계의 민족자주역량의 투쟁은 높아가고 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등 구사회주의권으로의 복귀는 민중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제국주의 약탈의 전면화는 제 3세계민중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반제자주역량의 자주적 진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이것은 제국주의의 결정적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민족자주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양모의 노골화

미국은 제 3세계의 저항과 제국주의자들과의 갈등, 자국내 경제침체와 만성적 자로 인한 어려움들을 자신들의 확실한 식민지나라인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더욱 노골화하여 해결하려할 것이다. 수입개방, 통상압력 등을 통한 경제침략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친미사대정권을 통한 정개개입은 더욱 고도화될뿐아니라 군사적 압박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이 항공모함 인대펜던스호를 한반도해역에 전진배치하고, 1개여단 규모의 육군을 주한미군에 추가배치하며 인디펜던스호와 구축함 등을 동원해서 해군 기동합동훈련을 한국 영해에서 실시하는것 등을 보면 미국이 전쟁도발책동을 통하여 더욱 더 한반도를 예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있지 않음이 명확하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더욱더 반제 자주의 기치를 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요즘 80년 5월 미국의 한반도의 지배안정화를 위해 신군부의 무력사용을 용인하였다는 자료들이 나와 미국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미국내에서는 언론조차 침묵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를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

세계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동북아! 일시적인 평화국면속에 계속되는 미국의 긴장책동과 일본의 야욕.

@세계열강의 각축장

한반도는 세계의 탈냉전의 흐름속에서도 여전히 정치,군사적인 이념의 대립구도가 남아있는 곳이면서도 세계에서 점유하는 시장, 인구, 자본, 기술, 자원 등의 비율의 중대성과 앞으로 발전 가능한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에 세계열강이 눈독을 들이며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즉,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나라가 자기민족의 발전뿐아니라 세계 정세를 주도할 수 있기에 동북아를 두고 각 국이 매우 복잡한 관계에 놓여있다.

@동북아의 평화의 기류, 통일외의 급정적 국면 창출

미국의 정치군사적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동북아의 지배를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전개된 북한말살정책은 북한의 자주외교노선의 승리로 인하여 미국의 일시적 후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북미해협상을 통하여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국면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이는 오랜 경제봉쇄와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자 하는 북한과 한반도의 지배력을 넓혀나가며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만난 지점이라 하겠다. 북-미의 유해송환협상,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통한 북미관계의 개선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한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평화국면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구도와 북한의 근본이해차로 난관이 조성될 수도 있다. 북미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의 자주, 민주, 통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과 동시에 북미관계 개선에 의한 평화국면의 도래는 동북아 질서를 결정짓는 요소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긴장세동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력 성장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 진출과 중국등으로 인하여 동북아내의 현재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어려움이 조성될 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침략의욕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연습을 통하여 긴장을 유지시키고 있다.

2월 19일에 시작된 미일 공동군사훈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일공동군사훈련은 타국에 대한 공격과 제압을 임무로 하는 부대가 중심이 되어 자위대가 미군의 지휘하에 작전에 임하는데 이는 북한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점과 미국이 한반도 침략에 일본까지 끌어드리려 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전쟁도발책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일본을 보며 우리 민중은 더욱더 반전 반핵, 반미반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전쟁도발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중심의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을 꿈꾸고 있다. 미국의 묵인아래 동북아를 자신의 지배질서 아래 놓기 위한 군사력의 증강과 미국과 공동군사훈련을 벌이는등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한편으로 유엔 안보리비상임이사국의로의 진출, 아시아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단절로 인해 안정적으로 동북아의 진출을 꾀할수 없다는 점이다. 이문제로 인하여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행보에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중국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경제대국으로서의 성장과 또한 대만과의 대립, 군사훈련, 일본과의 대립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남북관계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수인 김영삼정권의 반통일적 작태

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통일의 행보를 앞당기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삼정권은 보수화에 기반한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대결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김정권의 탈냉전 인식의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을 유성호 송환이나 월드컵공동개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김정권의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의 전진은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의 정당 및 단체 연석회를 제안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국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채 김영삼정권에 의해 거절되었다. 또한 미국의 충실한 하수인 김영삼정권은 미국의 사주를 받아 한미 공동군사훈련 등을 지속화하는등 긴장국면을 창출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의 평화적 국면과 북한의 노력, 남한민중들의 민족대단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권이 조국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럴때일수록 반통일정권 분열정권 김영삼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투쟁이 요구된다.

국내 정치정세

반민족,반민중,반통일정권 김영삼정권과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열어갈 민중들과의 한판 대 격돌기

국내정치정세는 각 정치세력의 권력을 향한 행보를 중심으로 가까이는 총선에 서부터 길게는 대선구도까지가 규정받고 있다. 이속에서 민중들이 김정권의 정권재창출구도를 막아내고 진정한 민중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난 3년의 집권기간의 자신의 본질이 국민들에게 낱낱히 공개된 마당에 정국주도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정권은 허구적인 개혁이미지 구도와 보수세력, 수도권에서 개혁인사를 꺼안는 속에서 인물중심으로 선거판을 짜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치부인 대선자금공개투쟁을 전개하는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영삼정권의 3년간의 행각은 이제 누구나가 알고 있다. 부패정권,도둑왕초, 칠순노인을 가두고 임산부를 가투어 태아까지 살인을 하는 살인정권, 민족의 생명은 아랑곳없는 사대 매국 정권, 반북모략책동에 북녘동포에 대한 민족애마저 가로막는 분열정권, 재벌들을 비호하고 야합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중생계 외면하여 5명의 열사를 낳게한 반민중정권인 김영삼정권의 파탄선고를 이제 4천만 민중과 함께 해야할 시기이다. 끓어오르는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투쟁해야 한다.

주제정서

각계각층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 가속화! 대중운동의 성장을 단일하고 결집된 힘으로 표출하기 위한 명확한 투쟁방향설정과 전국연합을 강화하기위한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단결이 요구된다.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경제투쟁에서 이제 사회개혁투쟁과 통일운동 등 정치투쟁으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MBC노조의 파업으로부터 시작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악법철폐와 노동통제정책을 분쇄하고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반민중적인 김영삼정권과의 한판 대결돌을 준비하고 있다. 농민들은 전농을 중심으로 농업사수를 위하여 UR에 따른 농업해체정책에 반대하며 보다 반미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고 전교조 선생님들은 복직 이후 현장에 기초한 교사운동으로 전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철거민들의 사활을 건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민중들은 상승하는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권의식이 비할 바 없이 높아지고 있고 참다운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열망을 드높이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은 정치적 대격변기를 맞이하는 시발이자 다음세기를 준비하게될 지금 항우 정치일정에 주동에 나서기 위하여 투쟁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과감한 반미반김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여성운동의 흐름

김영삼의 허구적인 여성정책을 심판하고 여성의 삶을 개선하며 사회개혁투쟁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김정권의 여성정책

정권은 복경이후 지나치리만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60년대이후 산업사회화과정에서 여성들의 단순노동이 필요로 되었다면 이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이속에서 여성을 단순노동이외의 영역으로 확대 활용하기 위한 고민속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정책의 주요한 방향을 보면 보육사업과 고용할당제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방향속에서 제출되는데 이속에서의 한계점이 도시지역, 고학력여성의 사

회참여 확대만을 이야기 하고 있고 기층여성들의 삶의 문제는 소외되고 있다. 즉 여성농민이나, 빈민여성, 매춘여성, 매맞는 아내등 소외받고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는 빠져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일 뿐 여성들의 전반의 삶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기에 여성정책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빈약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선거 공약속에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겠다는 것이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후퇴하였고 이러한 정책들을 집행하고 감시 할수 있기 위하여 재정의 문제나 구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방도 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여성단체의 흐름

여성단체들이 우리사회에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전파하였던 기간 의 성과점을 받아안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에도 여성운동의 주요한 관심은 인권복지의 문제로 한정되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제 여성운동내에서 여 성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이를 사회구조속에서 변혁의 관점으로 과제들을 도출해야 한다. 한편으로 작년 조국통일투쟁에 여연이 함께 하였던 부분은 긍정 적이다 할 수 있겠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러한 투쟁을 실천 하기 위하여 우리 청년 여학생들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사상적 노선

**함께하는 삶속에서 봉건성타파, 민족의식고취로 자주적
여성상의 구현하여 여학우 대중을 역사의 변화 발전의
주민주체로 세워내자.**

1. 현재 여학우들이 모습은 어떠한가?

남한 사회에서 여대생은 기득권층으로서 사회의 모순들 대대분 침해하게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여성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여성을 억압하는 지점이 침해하게 들어나지 않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위에서 서술한 두가지 측면은 대학사회에서 여성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대생에게 자주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조금은 용이한 지점이 있기도 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문제에 대하여 깨달아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개방성과 진보성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함께 현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체계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측면은 여대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이면 여성으로 차별 받는 부분을 무마할 수 있다는 의식을 성장시키게 한다. 그로인하여 개인적인 생활에 매몰되고 취업이라는 부분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여성억압에 대한 부분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여대생은 자신 스스로가 여성으로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것들이 자신의 이해와 맞물리며 침해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여학생운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학생운동은 더욱더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여대생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사하여 여대생의 삶의 형태와 의식수준을 파악하여 그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순의 지점들을 짚어내고 대안을 가지고 펼쳐내어야 하는 것이다.

여대생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부분

여대생도 마찬가지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해왔고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으로 길들여져 왔다.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산물속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만을 고민하고 경쟁하여 이기는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길러왔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여성으로 길들여져 왔으며 의식구조 자체에 여성이라는 사회문화적인 규정에 대하여 문제제기 할 수 없도록 성장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평등과 기회균등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여성에게

도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어 많은 사회적인 지위의 상승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인 여성 억압으로 인하여 남성보다는 수가 적고 질적으로 낮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은 다소 여성에게는 대립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인 지위상승에 대한 욕구와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더욱더 개인주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대생들이 변화에 주목하자.

대학에 입학하는 목적의 변화 - 예전에 여대생들은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의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왔던 것에 반하여 이제는 대학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을 가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소위 캐리어우먼에 대한 꿈을 더욱더 현실화 시키며 자신의 자존심이 강한 편이다. 그러하기에 더이상 여성을 순종적이고 유약한 여대생이라고 불리워질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의 성장은 자본주의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자행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사회구조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자기 삶에 대한 어설픈 책임성과 과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깨뜨려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과 함께 여성연대의식을 높여 내는 것 중요하다.

의식 형태의 변화 - 삶에 있어 의존적이었던 여대생은 많은 시대적인 변화에 힘입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능동적 대처이지,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다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자립자활력을 키워내는데는 어느정도 여대생들은 성장하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다방면으로 고민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속에서 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한것이 사실이다.

청년 학생으로서 여학우는 애정이 많고 정의감이 강하다.

양심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못하며 불의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충분히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면 그 일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일어서는 모습에서 여학우는 청년 학생으로서의 본질을 찾을수 있다. 단지 사회역사적인 인식이 많은 부분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부분을 보면서 여학우의 본성을 왜곡하면 안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졌으며 많은 면에서 적극성이 고양되고 있다.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지난 모습과는 달리 끊임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과 개척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신이 판단하기에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위한 실천을 펼치기도 한다.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책임져 보겠다는 의식은 거의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어느정도 성장한 책임 의식이 개인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을뿐 집단속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또한 사람관계가 폭 넓지 못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조금은 큰 집단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지 못하며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가부장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여성상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식민지반자본주의와 가부장제속에서 여성은 철저히 소외 받고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창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자신의 삶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에만 집중이 되어있을 뿐 사회문화 전반적인 여성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그 문화에 더욱더 종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여대생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2. 자주적 여성상이란 무엇인가?

여학우들의 삶속에는 여러가지 질곡들이 녹아들어 있고 그 고리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리들을 찾아 문제제기하고 극복을 위한 실천속에서 주인이 되는 계기를 창출하지 못한다. 삶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 그 고리들을 창조적으로 모색하고 능동적 도전과 실천적 시행착오를 통해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주인 주체로서 우뚝 서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삶. 그속에 바로 자주적인 여학우가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자주적 여성상은 자신의 삶을 옹골케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제 요소를 타파하기 위해 집단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나가 세계의 주인으로의 자기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3. 자주적인 여성상의 이렇게 구현하자.

봉건성을 타파하자.

- **성모순이 여학우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며 이러한 의식을 깨닫고 떠나가자.**

봉건주의가 가져다준 여성에 대한 생각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더 은폐되고 가리워져서 여성들이 삶속에 없는듯 하면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여학우들은 깨닫고 있지 못하며 자신의 삶속에 봉건적이 여성의 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설사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여성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격이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의 개성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주입되어온 봉건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여성상때문이다. 봉건적, 가부장제적인 여성의 모습들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여학우들에게 봉건성이 어떻게 삶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각인해주어야 한다.

여학우들의 봉건의식 타파와 더불어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성격과 이속에 녹아나 더욱더 복잡한 3중의 모순을 가져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해 굳어져 있는 사회 제반의 모순을 타파하고 우리 사회 전구성원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해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역사적 인식의 확대

- **족의 운명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자.**

여학우들은 현재적인 모습속에서는 남학우들에 비해 사회역사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적이고 교육을 통한 학습의 산물일뿐 여학우들이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에 진정한 주인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사회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해 힘쓰는것이 우리 여학우가 견지하여야 할 삶의 모습이다.

개인의 삶은 민족의 운명과 따로 떨어트려 생각할수 없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여학우의 삶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기에 우리 여학우들의 자주적 사상의식과 정치의식을 드높여야 한다.

공동체적인 삶을 일구어가자.

- **여학우의 집단성의 성숙과 그속에서 자신을 진정한 한 사회인으로 인식**

사람의 참된 가치실현은 집단속에서 발양될때만이다. 우리 여학우들의 개인주의와 객체화를 극복하고 집단 의식이 성숙되어질 때 여학우또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구호식이 아닌 생활속에서 단결의 장을 마련하고 이속에서 학우들의 변화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중성과 계급의식을 강화하자.

- 민중여성과 나의 삶에 대한 고찰로부터..

여대생들의 존재적 특성상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극복하지 않는 이상 여대생의 특권의식은 극복되기 어렵다. 근로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또한 이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핍박받는 민중여성들이 해방되기 위하여 우리 여학우들이 실천에 나서기 위해서는 민중의 편에 서서 싸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빈민여성, 매춘여성등 이들의 삶과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부대낄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한다.

조직적 노선

낙관적 신심 가득안고 학우속에 하나되어 투쟁하는
간부의 청형창출과, 과여부강화, 체계안착화로 조직적
토대 강화하여 지역 여대협, 전여대협 강화하자.

1. 간부단련사업으로 간부 혁신 이루어내자,

여학간부들을 보면 바쁘게 이것 저것 움직이는데 구체적인 성과로 가져오지 못하고 실무자로 전락되어 결국은 여학생운동을 패배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이 무엇인지 정통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을 뿐만아니라 힘있는 조직생활이 전개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간해방의 길에 드팀없이 걸어가는데 어려운 장애가 되기도한다.

간부 단련 사업의 내용

- 애국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고양하자

올바른 사상과 이론으로 올바르게 주장할 때만이 여학생운동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질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실지로 여학생회 간부들은 당면 정세에서부터 전체 변혁운동에 대하여 깊이있는 자기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주체적인 노력과 집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 여학생운동의 전문성을 치열히 연구하자.

선거때나 총노선 수립기간만 되면 여학생운동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전개되지만 이것이 일년을 관통하는 속에서 지속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민의 단절은 물론 해마다 같은 고민의 되풀이가 되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간부교양의 주체를 명확히 세우는 것과 동시에 여학에 정통하기 위한 간부 개개인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여학생운동의 생명은 우리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길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실천하는가가 관건이라 하겠다.

- 여학간부로서 책임심으로 무장하자.

이는 여학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여학간부 스스로가 여학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보니 이를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양하지를 못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여학운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경우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풀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기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여학일꾼 스스로가 이를 대중속에서 검증하는 과정속에서만 획득될수 있는 과제이다.

- 간부 혁신의 내용을 명확히 하자.

우리는 올바른 간부의 상을 저마다 그려내며 이를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속에서도 여학간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되게 고민하지 못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혁신의 상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간부 혁신의 과제

1) 학우대중속에 늘어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여학간부의 모습들을 보면 간부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학우대중 속에서 찾지 못하며 여학생회 속에서만의 고민과 실천으로 머무르고 있다. 말로가 아닌 실천으로 학우속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 마련과 집단의 실천이 필요하다.

2) 자립자활력을 높여내자.

여학간부 스스로가 여학운동에 대한 주동적인 자기 고민을 가져가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활동력을 높여나가고 있지 못하다. 여학생운동은 바로 우리 일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3) 조급성을 버리고 낙관적인 신심과 태도를 겸비하자.

여학간부들은 항상 뻑뻑거린다, 여학간부와 이야기 하기가 겁이난다. 등의 이야기들이 종종들려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단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보다 사람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투쟁이라 했을 때 학우들과 간부를 만날때 그들의 처지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교양자와 선동자로서의 자세로 여유롭게 다가가야 한다.

방도

각 대학의 간부 사업 주체 마련

지역 여대협 총화

전여대협 수면회 (중중적으로)

간부혁신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립과 총화와 모범전파.

(각 대학의 정기적인 조직생활과 이속에서 총화와 모범간부를 지역단위에서 잘 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직생활의 안착화

사람이 단련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습속에서만이 아닌 올바른 조직생활과 실천속에서이다. 각 대학에서 조희나 종례 기타의 모임속에서 안정적으로 논의구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나 이속에서 단순히 사업에 대한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조직생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과 더불어 사람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 총화를 안정적이고 일상화하자.

각 대학에서 조,종례등 일상모임속에서의 총화의 내용을 단순한 사업총화가 아닌 간부의 생활 총화 및 사상총화를 이루어내어 안정적인 간부단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조직생활의 내용을 내실있게 가져 간부의 역할을 높여내자.

총여간부는 총여간부답게 단여간부는 단여간부답게 자신의 지위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조직생활의 계획수립과 이를 지켜내기 위한 간부의 자세를 가져가자.

3. 지역 여대협 강화

현재적으로 지역여대협의 처지와 조건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그 지역 여대협의 실정에 맞게 자기의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 대표자 회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안착화하자.

지역 여대협이 없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체를 세워내며 당장의 성과는 없더라도 꾸준히 가져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 지역여대협의 자기 방향과 목표를 갖자.

지역 여대협이 지역 여대협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각 대학의 상황을 잘 총화하고 통일된 지도지침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역여대협이 전여대협과 각 대학의 다리역할이나 각 대학보고에만 그치지 않기 위하여 보다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전여대협의 지도사업이 책임성있게 전개해야 된다.

지역여대협 토대가 튼실한곳과 주체를 마련해야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도 사업을 전개하자.

4. 과여부(회)의 강화 (보론 참고)

전여대협 - 과여부의 위상역할 제정립-총노선 보론으로 제출

- 과여부 연구와 모범전파를 위한 연구사업(정책단 회의)

과 대학 - 각 대학에 상황에 맞게 과여부 지도 주체를 마련하자.(고민요)

- 전략단위 설정

지역 - 지역여대협에서의 끊임없는 총화

과여부에 대한 위상역할을 명확히 하는 부분과 더불어 각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여부의 활동과 내용을 잘 총화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간부 재생산 구조를 근본히 하자.

해마다 간부의 부족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총여 단여 과여부의 체계를 튼튼히 하는 속에서 인자를 끊임없이 발굴, 육성하는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술동아리나 소모임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학술동아리나 소모임은 학교마다의 모임의 성격과 수준이 다르고 지도단위가 다르며 모범적인 단위가 있으나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전여대협은 과여부(회)와 마찬가지로 연구사업과 모범전파를 주요한 방향으로 잡고 정책단회의속에서 전개할 것이다.

골간단위 학생회와 결합력을 드높이자.

여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여학생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주위 동지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대학들을 보면 골간단위 학생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풀지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 대학들마다 골간단위와의 논의체계를 가지고 있는 단위와 논의체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단위와 여학생운동을 전개하는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골간단위와의 결합력을 드높이자는 것은 첫째, 여학생운동을 전체화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과제이고 둘째, 여학간부의 전체운동의 시각을 넓히기 위해 풀어야 되는 과제이다. 이는 총여학생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단대, 과여부(회)도 함께 풀어야할 것이다. 골간 학생회와의 결합력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여학간부들의 교양자적 입장에서 경직되지 않고 여유로운 자세가 요구된다. 방도로는 단위 상황에 맞게 논의 체계를 다양하게 가져가며 여학생운동에 대한 정확한 총화가 될 수 있도록하자.

대중적 노선

**50만 여학우의 힘을 모아 청신대 문맹 완전해결투쟁과
반미반김투쟁 진면화로
민족자주권회복과 민족대단결의식고취로
통일조국 건설하고 인간해방 환길로 달려가자.**

대중운동의 원칙

1. 학우대중의 구체적인 참여가 보장어 주인주체로 설수 있는 대중사업을 펼쳐내자.

그간의 여학생회 사업을 보면 여학생회의 고민을 학우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학우들을 객체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기획자보, 또는 학술제, 강연회등 (이렇나 사업이 부정적이라는 말이 아닌 보다 보충,보강해야할 부분이라는 지적) 일방적인 주의 주장만으로 그쳐버리고 학우들의 구체적인 고민을 듣고 함께 풀 어낼수 있는 통로가 많이 막혀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간의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고 구체적인 학우들의 참여마당을 넓혀내자.

구체적인 방도로 토론마당의 활성화속에서 매시기 사업속에서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우들이 토론문화의 주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자. 또한 매시기 대중사업에 학우들이 직접 주인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창출하자.

이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학우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심내용과 방향을 잃지 않는 여학간부들의 지도의 역할이다.

2. 대중사업의 중심내용을 일관되게 잡아내자.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면 매 시기 대중사업이 일관성을 잃고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올해의 중심방향과 내용을 틀어쥐고 매시기 사업속에서 녹여낼수 있어야 한다. 출범식, 강연회, 대동제등 각 사업의 특성을 살리되 흐름을 이어가며 일 관련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 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사업을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로 무리한 욕심을 내기보다 하나의 판을 준비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며 커다란판으로 만들어갈수 있어야 겠다.

대중투쟁노선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정은 결코 따로 떨어진 것이아니라 이제 이를 총체적으로 실현해야될 과정은 우리는 안고 있다.

민족 자주성의 과제 -민족 자주의식고취하자.

주한미군철수 투쟁(한미행정전면개정, 기지반환운동)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명확해야한다. 이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야욕의 실현의 무기인 힘에 기반한 정치군사의 지배를 끝장내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철수가 관건이라 하겠다. 이제 주한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고리를 협상중에 있는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에서부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지반환운동을 적극적으로 결합해들어가고 기지촌 활동을 통하여 학우들의 반미 자주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정신대문제 해결투쟁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는데 독도의 문제 또한 이러한 일환에서 벌이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정신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는 길임을 명확히하며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자.(이후 정신대 투쟁에 대해 자세히)

민생인권투쟁의 과제

반민족 반민중 반여성정권인 김영삼 정권에 대한 명확한 전선을 긋고 김정권 타도 투쟁을 적극 펼쳐내자.

김영삼의 본질은 집권 3년동안 날낫이 폭로되었다. 학우들의 김영삼정권에 대

한 분노를 모아 김영삼의 정권재창출의 음모를 박살내기 위하여 반김투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한다.

특히나 여학우들의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문제와 일치시켜내기 위한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일은 중요한 투쟁이 될것이다.

가족법개정투쟁등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내자.

총선을 앞두고 국민회의는 여성의원할당제를 25% 하겠다는등 가족법개정을 각 정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단순히 선거용으로 되지 않고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로 안아오기 위하여 여성단체와 연대투쟁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조국통일 투쟁

민족대단결의식 고취하자.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속에 퍼져있는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민족대단결의식의 고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바로 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정신대 문제는 한민족이 당했던 아픔을 이제는 분단된 조국에서 각자 풀어가는데 아닌 우리의 민족이 함께 풀어야되는 과제인 것이다. 정신대 문제를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해들어가고 정권을 압박해들어가며 남과북이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자주교류를 활성화하자.

지금까지 청년학생의 대중적인 자주교류 투쟁으로 분단정권인 김영삼정권 마저도 같은 민족을 알고자 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열정을 더 이상 불법화하고 탄압을 펼칠수 없게 되었다.

자주교류투쟁이야말로 북녘에 사는 동포를 더욱 가깝게 하고 우리 학우들에게 조국통일의 신심을 안겨줄수 있는 유력한 투쟁의 방도이자 조국통일을 한층더 앞당길수 있는 투쟁이다. 이제 지금까지 자주교류투쟁에 대한 성과를 이어받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보다 학우대중들과 함께 하는 투쟁을 벌여내자. 기간에 7-8월에만 통일투쟁을 전개하였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투쟁에 대한 일관된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나 자주교류투쟁의 그간의 한계인 학우대중과 함께 하지 못하고 선언식의 자주교류가 아닌 학우대중과 공감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년의 흐름속에 꾸준히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몇몇지역만의 투쟁으로 고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도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투쟁을 벌여 50만 여학우의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한다.

올해 중심투쟁의 방향

정신대문제 해결투쟁.

정신대 문제는 민족의 문제, 계급의문제, 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문제이며 이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도 총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1. 투쟁의 의의

- 1)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식민지 조국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 2) 민족수난사는 여성의 수난사이다. 제 2의 정신대를 끝장내고, 성의 침탈을 막아내는 길이다.
- 3)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투쟁으로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2. 투쟁의 목표

- 1) 정신대문제를 외면하고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는 김영삼정권을 타도하자.
- 2) 남북 공동투쟁으로 민족대단결의식 고취하자.
- 3)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저지하고 일본이 UN의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며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 투쟁한다.

3. 투쟁의 내용

- 1) 정신대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민족의 문제를 제일 우선시 한다던 취임당시와는 다르게 민족의 자주권의 문제와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정신대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김영삼정권을 우

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엔에서도 일본에게 정신대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제하고 각 당사국마다 정권에서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데 김영삼정권은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내팽개치고 국민의 요구마저도 무시하는 김영삼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정신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일본의 독도망언등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며 전세계가 정신대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의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작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대중적인 항의 방문 투쟁등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자.

3) 민족 자주권의 문제를 한민족인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자주교류를 활성화하자.

분단전에 민족이 당했던 아픔을 함께 치료하고 함께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올해에는 작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어느 한지역만의 한정된 투쟁이 아닌 전국적인 투쟁으로 또한 학우들과 함께하는 대중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4) 일본의 민간인 위로금을 끝장내고 정신대 할머니를 책임지기 위한 대중적인 선전과 조직화사업을 전개하자.

작년 많은 지역에서 정신대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의식화 작업을 해내면서 정신대 할머니 돕기위한 모금이나 후원회를 조직화하여 구체적인 사람을 남기는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제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 학생이 우리 할머니들에게 끝까지 지치지않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

4.투쟁의 흐름과 방향

(이후 일본, 국제 정세, 정권의 입장의 변화된 추이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음)

총선시기

정신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던 김영삼 정권이 요즘 UN의 권고

안이 발표되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자 태도를 달리하는등 민중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정신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김영삼정권을 총선에서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4-5월

정신대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의식화 작업을 전개하며 대중사업과 대중공간을 최대한 활용 다양한 방식을 구사하자.

5-6월

남북의 공동 해결투쟁을 위하여 각 지역과 대학에서 자주교류투쟁을 전면화하고 활성화하자.

7-8월

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투쟁을 하나의 힘으로 모아 7-8월 통일투쟁과 함께 폭발적으로 전개한다.

9-10월

기간의 투쟁을 총화하며 다시한번 대중적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투쟁을 전개한다.

방 도

대중적인 강연회와 후원회 조직화등이나 지역에서는 하루정도 상경하여 수요집회에 참석, 이후 간담회 등을 가져내어 여학간부들이나 학우들에게 정신대 문제의 심각성과 투쟁의 의지를 불러모으는 것도 고민해볼만하다.

학내 성폭력근절 투쟁을 힘있게 벌여내어 여학우들이 자주적인 삶을 보장하자.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방면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학내에서 성폭력 상담기구를 마련하고 학교주변에서 퇴폐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는 것과 학우들에게 올바른 성문화의식을 심어주는것 등 다방면의 투쟁을 힘차게 벌여내

는 것이다.

민중연대투쟁

여학단위의 연대사업의 방향은 흔히 농활, 탁활, 기지촌활동등 기층연대와 여성회등의 여성단체와의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단체등과의 연대사업으로 여학생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는 잇점이 있음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남한의 여성운동의 방향을 잘잡아가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해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층여성들이 사회개혁의 주역으로 서나갈수 있도록 기층 연대투쟁에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활동

농활의 의의:

범국민 농업사수 전선의 기본 토대를 강화하고 여성농민대개혁을 위한 여농-학간의 일상적인 연대를 이루어 내어 전체 여성농민운동과 민민운의 발전에 기여한다.

여대생들의 민중성,계급성을 체화할수 있는 활동으로 여성농민의 삶을 통해 조국의 현실을 볼수 있는 시각을 마련하는 장이며 건강한 노동으로 흘린 땀의 의미를 되새길수 있는 공간이다. 더불어 농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봉건성 타파를 위해 자주적 여성상을 발현시켜내고 구현할수 있는 장이어야 하겠다.

96년 농학연대 사업목표와 방향

목표:

- 1)전국,도,군에 이르는 여농학 연대사업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여성농민과 여성농민 조직발전에 기여한다.
- 2)농활의 질적발전과 윤택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침을 마련한다.
- 3)각급단위 여농학 주체를 최대한 확보한다.

중점과제:

- 1)전국,도,군에 이르기 까지 준비된 농활 수행
- 2)여농반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기지촌 활동

의의:

- 1)청년학생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서로의 삶에 서로의 변화를 주는 활동이다.
- 2)각 단위 여학생회,여대협과의 조직적 연대 및 강화를 꾀하는 활동이다.
- 3)미군범죄 근절투쟁을 내용 조직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며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강위력하게 펼쳐나간다.

중점과제:

- 1)전국적인 확산을 가져오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서여대협 기활추의 위상을 높여낸다.
- 2)올해 요구되는 반미 정세인 한미행협 전면 개정투쟁과 기지 반환운동을 벌여낸다.

탁아 활동

중점과제:

- 1)지역 모범단위 발국과 전파
- 2)지역단위 상황에 맞게 전개하자.

4.11 총선 투쟁 결의문

50만 여학우의 힘모아

반민중적이고 반통일적인 김영삼 정권

4.11총선에서 끝장내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지 4년, 그 동안 김영삼 정권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땅에 소외 받는 계층을 더욱더 기묘하게 억압해 들어갔다. 지난 겨울에는 다섯분의 열사를 낳게 하였으며 지난 어떤 군사정권보다도 더욱더 칼날을 세워 민족 민주세력을 탄압해 왔다. 김영삼 정권의 과거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만행은 이루해야될 수 없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늑대의 탈을 쓴 양일 수 없다. 그는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미국에게 굴종하는 친미독재정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4.11총선을 맞이하여 신한국당과 김영삼을 4천만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는 것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 길에 50만 청년 여학우는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여학우의 올바른 정치의식 고양으로 선거의 진정한 주체로 세워 내어 김영삼 정권 타도의 기치를 높이 들자.

여학우는 청년으로서 정의감이 강하고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나 식민지 사회와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성장하였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요구를 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학우에 대한 김영삼정권의 허구성을 날날이 폭로해 내고 김영삼정권의 타도를 50만 여학우의 힘을 모아 이루어 내자.

2. 김영삼 정권이 내놓은 여성정책의 허구성을 날날이 폭로하고 김영삼 정권을 심판하자.

지난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속에서 정권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낸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 정책의 실효방안이 생산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 정책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억압받고

소의 받는 노동자, 농민계급 여성의 정책은 거의 없으며 중산층 여성을 위한 정책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영삼 정권의 여성정책의 본질과 허구성을 날날이 폭로하고 총선에서 이 땅의 억압받는 여성을 기만적인 여성정책으로 우롱하는 김영삼 정권을 끝장 낼 것이다.

3.정신대 문제 해결의지 없는 김영삼 정권을 심판하고 정신대 문제해결하자.

김영삼 정권은 민족의 문제를 최우선시 하겠다고 취임시 밝혔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제는 유엔에서도조차 일본에게 정신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각 당사국들도 정권에서 나서서 정신대 문제해결을 일본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민족의 진정한 자주권을 회복하는 길인 정신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민족자주권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김영삼 정권의 총선에서 심판하고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50만 여학도가 선봉에서 수행할 것이다.

정신대 문제해결의지 없는 김영삼 정권 반대한다.

허울좋은 여성정책 김영삼 정권 반대한다.

50만 여학우의 힘모아 4.11 총선에서 김영삼 정권 심판하자.

민족자주권 회복의지 없는 굴욕적인 김영삼 정권 타도하자.

정신대 문제 해결 투쟁 결의문

지난 선배들의 투쟁 성과를 받아 안아 더욱더 가열차게 정신대문제 해결투쟁을 벌여내면서 올해 안에 기어이 원전해결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한다.

하나. 정신대 문제 외면하는 김영삼 정권은 민족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비주체적인 모습으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 일본의 명백한 범죄행각을 무시하고 한일조약으로 전후처리는 끝났다고 위안부 보상의무가 없다고 천명한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의심케 한다. 이땅의 딸들은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마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두울. 일본제국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는 독도망언과 위안부 문제를 민간기금으로 무마하려는 행태, 일본 고위관료들의 잇따른 망언에서 엿볼수 있다. 일본정부는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찬미하고 아시아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행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이같은 발악을 우리는 그냥 묵과 할수 없다.

세엣.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투쟁하며 민족대단결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 분단전 민족이 같이 당한 아픔을 함께 투쟁으로 치유하고 전국민의 문제로 확장시켜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민중의 힘을 모아야 한다.

네엣. UN은 전쟁시 일본이 저지른 잔악하고 비인도적인 행각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피해국의 국제적인 연대활동은 일본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UN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 이상 상임이사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기금은 즉시 중단할것에 대해 대중적으로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확산시켜 나간다.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정신대문제 해결 투쟁은 침묵에서 외침으로 역사의 힘찬 발걸음이었다. 내 딸들이 두 번 다시 당신의 길을 걷지 않게 하겠다며 곳곳이 집회에서 목소리 높여 외치시는 의연한 할머니들의 투쟁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2의 정신대로 비유되는 기지춘 여

성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청년 여학도들은 정신대문제 완전해결그날, 여성인권유린의 역사가 끝장나는 그날까지 쉽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정신대 문제 외면하는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일본군국주의 부활을 적극 반대한다!

남북이 하나되어 정신대 문제 해결하자!

일본정부의 기만적인 해결방식 민간기금 반대한다!

전쟁범죄 공개 사과하고 법적배상 즉각 실시하라!

92

조국 통일 투쟁 결의문

한민족이 외세의 힘에 의해 갈라졌던 반 백년!

한 민족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으로 투쟁으로 정철 되었던 반백 년의 역사

평화의 국면으로 도래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고 있는 미제와 그의 하수인 김영삼의 분열책동은 그칠 줄을 모르고 한반도의 분단의 벽은 민중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줄을 모르고 있다.

북한의 월드컵 공동개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잠정 합의문 제안, 남북 정당 및 단체 연석회의의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 미 항공모함 인디펜더스호로 입항시키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네,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는 미·일 공동군사훈련이네 하며 미제의 한반도 전쟁책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술더든 미제의 충실한 하수인 김영삼은 그동안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한민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민중들의 요구마저 가로막고 있다.

그야말로 민족분연주의자이며 반통일 정권으로서 자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아무리 국가보안법이나 총칼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시대의 대세와, 민중들이 뜨거운 통일의 열망은 가로막을 수 없다.

이제 전여대협 50만 여학도는 민족의 운명을 주인으로 통일조국 건설하는 그 길에 선봉투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미제와 김영삼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안아 오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투쟁에 매진할 것이며, 통일의 주인은 바로 남과북 7천만 겨레이기에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격파하고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여 7천만 민중이 단결하여 통일투쟁의 주인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또한 분단된 조국은 하나로 이어 내기 위한 거족적이고 전국적인 자주교류 투쟁을 활성화하여 50만 여학우와 이북 여대생들의 통일의 열망 하나로 이어 내어 통일조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을 결의한다.

이제 분단된 조국의 운명을 미제와 김영삼 일당에 그대로 맡겨 둘 수만은 없다. 한반도 여성의 힘과 지혜로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전쟁책동 분쇄하고

통일조국 안아 오자!

반통일 세력 김영삼 정권타도하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50만 여학우의 단결투쟁 민족대단결의식 고취로

통일조국 안아 오자!

대중적인 자주교류투쟁으로 통일투쟁 전개하자!

동지들에게 의견 받기는 쉬우며
 여학생운동을 성과적으로 진행이기는 어렵고
 쉽게 지지 나가 떨어지기 쉬운 간부의 모습

1.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간부
2. 전체의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적인 간부
3. 학우나 다른 간부에게 사업을 적절히 배분지 못하여 다른 이들이 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간부
4.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올려 동료를 부담스럽게 하는 간부
5. 비판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결백에 모든 사업에 완벽에 보이려는 간부
6. 항상 서두르는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불인감을 인겨주는 간부
7. 이루어질 빈틈거리며 자기 일을 찾지 못하거나 끝없이 개겨서 다른 비쁜 이의 속을 상하게 하는 간부
8. 열마나 잘, 열심이 일을 성과적으로 미치는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고 놀끼를 고민하는 간부
9. 자기 일에만 매몰도이어 전체를 돌입볼줄 모르는 간부
10. 자신의 책임을 원수이지 못해 전체 일에 지연을 주어 다른 간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간부
11. 공부이고 연구이지 않는 간부
12. 옆에 있는 간부를 개보듯이 무관심한 간부

여학생운동과

여학생회의의 위상 역할

1. 여학우의 처지와 본질적 특성

- 처지와 조건을 이해하려는 이유

2. 여학생운동 - 청년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의 부문운동

3. 여학생회란?

- 여학생회의의 위상 역할

1. 여학우의 처지와 본질적 특성

● 여학우의 현상적인 모습

생활적인 측면

공부와 취업준비에 치중하며 좁은 생활공간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개인의 생활을 하며 무리지어 생활, 끼리끼리 움직인다.

의식의 방향

대학생이라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다.
기존의 관념에 반발을 하지만 또한 이속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2기 총노선 사상적 측면 여학우의 현재적 모습 참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가) 뿌리깊은 성차별의식인 가부장제의 사회화되는 과정이었다.

여성은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살아가야 했다.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 ‘여자는 손맛이 좋아야’ ‘시집만 잘 가면’ ‘똑똑한 여자는 피곤하다’

이것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계집아이로 사내아이로의 역할을 강요받았고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로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성별로 평가되었다.

어른들에게 이쁨받고 주위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예쁘고 착한 여자여야 했던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일곱가지 콤플렉스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착한 여자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성 콤플렉스, 외모, 지적, 말빨, 슈퍼우먼 콤플렉스 등

이러한 요구는 바로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커나가기 보다는 인형이 되기를 집안에 있기를 그리고 여성은 웬지 열등하고 질투심이나 많은 존재로 만들어 여성들끼리의 단결마저 막고 이었던 것이다.

대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과내에서도 웬지 여자 선배보다는 남자선배가 더 듬직해보이고 또한 이러한 사회의식들이 강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어 우리 여학우들의 진취적인 성향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ㄴ)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여성문제는 사회성격과 결부지어진다. 즉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등 제반의 것들에 연루되어질 수밖에 없다. 여대생이라는 존재적 특성, 즉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로 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정치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은 평균 2%로 세계다른나라의 20-30%에 훨씬 못미칠뿐아니라 여성이 정치에 있어 주인이 되지도 못하고 여성의 지위나 생활을 위한 정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로 여성의 일은 집안일이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막아왔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서 단절되고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서 정권에 하수인으로서 여성들을 정권에 정치의 들러리도 동원하는식의 여성운동이 펼쳐져왔던 이유이다. 이러한 속에서 여성의 정치의식은 낮을 수밖에 없었으며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었다.

두 번째로 경제를 살펴보면 대학을 상품화시켜 돈을 벌기 위한 자본의 논리와 예미 사무직 노동자의 급증을 통해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동통제를 기도하는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한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려는 성차별의 문제로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입사원서 받기도 어렵고 어렵게 받은 입사원서도 많은 자격요건(미모)으로 좌절되고 또 혹시 입사를 했다하더라도 남성의 60%밖에 안되는 월급, 카피, 커피심부름등 단순노동속에서 자신의 자아실현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의 후배가 상관인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일 등.

그러나 각종드라마등을 보면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여유롭게 찾아가는 여성들이 보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에 우리 여학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문화면을 보면 해방이후 밀려들었던 서구의 문화가 이제는 생활 깊숙히 침투하였고 특히나 성의 상품화의 물결에는 대책이 없었다. 사회에 퍼져있는 성의 상품화가 이제는 학내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고 있으며 여대생들에게 소바문화를 유포시키고 이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외모 콤플렉스와 결합하여 서구의 미인을 따라잡기 위하여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를 강요하였고 이것은 여대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네 번째로 법에 관하여 보자면 여성고용평등법이 있지만 아직은 사문화되어 있고 실제로도 병역가산특례법등 남성에게 유리한 법이 내뱉히게 살아있으며 구멍이 많은 성폭력특별법, 가부장제에 기초한 가족법등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하게 아직까지 대미증속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정부이기에

식민지의 여성으로 당하는 아픔으로 담요부대로 이듬지어지는 양공주가 몇만명이나 존재하고 매춘관광등으로 우리의 젊은 여성 다섯명에 한명이 향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학우의 본성과 건강성

ㄱ) 여학우의 본성은 무엇인가

여성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

즉,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며 자기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 되고자 한다. 다른 누구에 의해서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자기 삶에 주인으로 되기 위해 창조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며 의식적으로 사고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 여학우들은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으로서 가지는 특성이 있다.

즉 다른 사회성원들과 다르게 젊은 혈기와 피가 끓는 청년으로서 패기가 있고 순수하고 정의에 민감하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타협하기 보다는 이를 뚫고 나가려는 의지가 강하며 학생이기에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조사하며 사회의 관습을 고치려는 속성이 강하다.

여성으로서 가지는 속성이 있다.

모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긍정성중에서 성실성과 헌신성이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성실성과 헌신성은 바로 다음세대의 딸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여학우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해와 동정심이 많은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자기 전공에 대한 성실성 또한 이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본질적인 것이기 보다는 사회화되는 과정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 사회성과 집단성을 결합시킨다면 여성의 자주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ㄴ) 여학우의 건강성은 무엇인가.

이시대의 건강한 여성상은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역사의식과 비판의식으로 깨어 있고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해 나가는 여성이다.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와 모순이 많이 있는 이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이 속해 있

는 작은 집단에서부터 소속감과 능동성을 고양해 나가면서 얻게 되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과정에서 사회성, 집단성이 높아져갈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갖는 경쟁심도 불식될 것이다.

여자는 약해도 모성은 강하다고 한다. 이 힘이 사회성과 집단성과 결합한다면 여성들의 힘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ㄷ) 여학우의 자긍심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첫째로, 그동안의 우리 민족의 역사속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보자.

위인전을 보면 대부분의 애국 열사는 남성으로 그리고 몇명의 여성들은 봉건적인 여성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었다.(이는 대부분의 기록자가 남자인 점을 주시하자.) 그러나 역사에 쓰여지지 않은 우리 여성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여성들의 지위가 열악하였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 열등한 존재(?)인 여성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집단의 힘으로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였다. 일제시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찾게 되면 우리여성의 지위도 높아질거라면서 작게는 국채보상운동에서 부터 크게는 직접 총칼을 들고 일제와 싸움을 했던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선조 여성들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긍심이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를 지탱해주고 발전시키는 근본이다. 바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새대를 이어주는 것이다. 이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책임성 성실성등은 우리 사회를 변혁하는 근본 동력이며 잠재력인 것이다. 우리 여성농민들의 단결된 힘이나 또한 생존권적인 투쟁(철거민 투쟁, 아파트 등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투쟁등)을 보면 우리 여성들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

ㄹ) 여대생들의 역할

지금까지 우리 여대생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 여대생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 대학과 사회에서 어떻게 서있을 것인가. 여학생은 스스로 인식하고 깨쳐서 미래의 여성상을 세우고 건강하게 사회에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여대생중에는 미래의 주부도 있고 전문직 여성도 있고 사무직 노동자도 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문제를 언젠가는 자신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질곡들을 여대생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삶이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다. 이제 대학내에서 우리 여성들의 건강성을 발향시키며 사회성과 집단성을 높여내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여야 한

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부터 미래의 여성상을 세워나가야 한다.

여학우의 처지와 조건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여학우의 처지와 조건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여학간부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명확히 파악했을 때만이 투쟁의 목표와 방도가 명확히 제시되는 것이다.

첫째, 여학생들의 처지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한다고 해서 여학우의 일상적인 요구를 파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여학우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닌 자아를 사회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속에서 사회의 당당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라는 집단속에 자신을 소속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현실 참여의식의 확대를 대변하는 것이다. 하나가 아닌 우리를,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여학우의 자주의식의 잠재를 우리는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의 본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참여로 나아가기 위해 여학우의 처지와 조건의 이해는 개별적으로는 풀어질수 없는 여학우의 이해요구를 집단화하고 사회화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한 개인의 힘으로 풀여지지 않는다. 여학우의 이해 요구를 하나로 모아낼 때만이 투쟁의 방향과 방도가 보이는 것이고 집단적인 힘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2.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운동이란 말그대로 여학우들이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옳게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운동이다. 즉, 여학우들이 주인주체로 나서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제요소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주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사회속에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즉 자주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곧 인간해방이 여학생운동의 총적 목표이며 여학우들의 삶을 억압하는 제 요소가 투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집단의 힘을 모아가는 것이 투쟁의 방도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남한에 살고 있는 여대생들의 처지 특성에 따른 여학

생운동은 여학우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봉건사상을 타파하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의 전면화로 민족 자주 정권수립과 통일 조국을 건설하고 인간해방을 안아오기 위한 단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학생운동의 주체는 여학우라고 하는데 분명 우리 나라 사회속에서 자본주의의 속성상 성의 차별화로 인한 억압의 당사자는 여성뿐만이 아닌 남성 또한 피해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성차별의 주요 모순의 억압의 피해자는 여성이며 그러하기에 여성들이 투쟁에 주인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항상 유념해야 할 점은 여성들이 투쟁의 주인으로 나서서 여성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여성들만의 권리 획득이 아닌 궁극적으로 성차별을 없애나간다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남성들의 지지 지원 투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의 차별화로 인한 피해자는 우리 여성들뿐만이 아닌 남성들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의 힘이 뒷바침되었을 때만이 힘있게 전개될수 있기에 남성들과 함께 하는 연대투쟁 또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민족, 계급, 성의 모순에 억압당하고 있다. 성의 모순은 민족, 계급의 모순이 해결되어야 즉 사회개혁투쟁이 달성되어야만 성모순의 물질 토대, 사회 구조적 모순이 해결될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간의 의식개혁은 하루 아침에 달성되는 문제가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성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의식개혁투쟁또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의 총적방향 (목표)

여학우들을 자주적 주인주체로 일떠세우고 봉건사상 타파와 자주,민주, 통일 투쟁의 전면화로 민족자주정권 수립과 통일조국 건설하고 인간해방을 안아오자.

여학생운동의 당면 과제

- 당면한 사회개혁투쟁에 여학우를 주인주체로 세워내어 집단속에서 자주성을 고양한다.
- 성차별의식을 철폐하고 올바른 인간관 확립으로 대학내의 남녀 차별의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 제국주의 문화, 성폭력문화를 추방하고 이를 대신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건설한다.
- 여학우들의 사회진출을 함께 준비하며 각 계급, 계층 여성들과 연대하여 사

회개력투쟁에 함께한다.

여학생운동의 지위,역할

7) 학생부문운동으로서 여학생운동

학생부문계열운동이란 학생운동내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이라는 사회적 처지 이외의 또 다른 처지에 따라서 근거하는 학우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이다.

학생대중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는데, 학생이라는 신분이 사회역사적으로 형성, 진행되어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역사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속에서 또한 전공별 학문영역의 분화가 다양해지고 그 전문화 정도가 엄청난 속도로 심화되면서 학생대중은 자신의 전공전문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가지게 되며 부문화된 이해와 요구를 선명하게 가지게 된다.

학생운동 속에서 학생이면서 또다른 사회적 처지가 중첩되면서 그처지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운동이 부문운동이다. 학생부문운동은 자신의 또 다른 처지에 근거하는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킴으로써 학생운동을 풍부화하며 사회부문운동을 활성화한다. 이에 여성운동, 문화예술, 종교, 언론등 또다른 사회적 처지에 근거한 사람들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학생부문운동으로 분류된다.

문화, 종교, 언론인등은 그 당사자의 결의에 의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처지로 일단 결의하여 문화예술동아리에 들어간다거나 언론인이 된다거나하여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자각하고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지만 여성이라는 사회적 처지는 자신이 얻겠다고하여 얻을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자신이 버리겠다고하여 버릴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평생동안 규정하는 문제이며 더군다나 여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의 담당자 모두가 문제 해결에 직접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학우 대중 스스로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조직형태를 원하게 되며 자생적으로 조직형태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주적인 대중조직 여학생회이다. 따라서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들을 자신의 처지에서부터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눈을 뜨게하여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서게하고 또한 사회변혁의 일주체로 서게한다. 이것은 곧 청년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복무하는 운동임을 의미한다.

8) 여성운동 속에서의 여학생운동

남한의 청년학생운동은 민족해방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여학생 역시 청년학생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학생들은 취업차별철폐 투쟁에서 자신

의 경제적인 이해에 기반한 투쟁을 전체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는 속에서 벌어지며 전체 여성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위한 투쟁을 실제적인 힘으로서 고무시켜 낸다. 또한 높은 정치의식에 기반하여 타계급계층 여성들의 투쟁에 지지,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여성운동이 당면 구국투쟁에 밀접히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벌여냈던 성과점으로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를 건설한 것도 한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여학생운동이 매시기마다 전체 투쟁과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자신의 내용을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운동이 정치투쟁과 결합하는 것도 많지는 않다. 하지만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통해 그 대중적인 힘을 모아 여성운동의 선봉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민중여성들과의 연대하여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투쟁성을 배운다면 여학생들은 식민지 청년 여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자주적인 존재로 변화할 것이다.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자 건설된 자치조직이며 여학생운동을 목적의식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현재까지 제기된 조직체 중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체이다.

위상

모든 여학우들을 회구성원으로 하며 대중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간부를 통해 운영되는 여학생회는 여학우 스스로의 요구속에서 건설되어진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여학생회는 대중으로부터 강제받고 집행되어짐으로써 여학우의 자주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조직체이다.

역할

-여학우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여학우들을 자주적 주인주체로 세워 낸다.

여학우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여학우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는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제 요소들을 타파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살고자 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며 자주적 주인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사회속에서 실천하여 집단의 힘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주적 주인주체로

되어 가는 것이다.

-학내의 비민주적인 요소, 성차별적인 요소를 극복하는 투쟁을 학우들과 함께 전개한다.

학내의 성의 상품화 문화, 성폭력의 근절, 성을 차별화시키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학우 뿐만 아니라 남학우와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여학우들을 사회의 예비일꾼으로서의 준비로 기층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성차별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투쟁의 선봉대로 나서야 하는 역할이 있다.

과여부(회)에 대하여 고민해봅시다.

1. 과여부의 기간의 모습은...

과여부는 각 대학마다 다르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우스스로가 만들어낸 조직이다. 어느과를 보면 학도호국단 시절에서부터 과여부가 권익부나 행사때 밥부정도의 역할을 하였으나 각급 대학의 총여학생회가 건설된 이후에 목적의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① 과여부의 수준이 다양하다.

어느과를 보면 과여부가 자기 역할과 내용을 찾지 못하여 일년에 행사때 주목을 담당한다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년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우들과 매시기 투쟁과 사업을 함께 하는 모범적인 과여부까지 과여부의 수준이 다양하다.

② 과여부의 자기 내용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과여부마다 차이가 많은데 모범적인 과의 경우는 과여부사업이 과내에 정착되어 학우들속에서 검증받고 보다 더 풍부화하는데 반하여 과여부의 자기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학생회에서 제기하는 사업만을 전개하며 과내의 선전부나, 집행부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③ 과여부가 과여학우를 자기 대중으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범적인 과에서는 과여부원들을 세워내고 여학우모임 등을 가져내는등 학우들과 함께 전개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는 단순히 과여부장님만의 고민으로 여부사업을 진행하려 하다보니 어려움이 나서는 곳이 있다.

④ 과여부의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범적인 과들을 보면 과여부장님의 열의 열정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치열한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의 과여부가 사람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떠맡게 되거나 해서 여부장님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 총여, 단여와 함께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무엇보다도 여부장님의 열의 열정이 중요하다.

⑤ 과학생회 단여 과여부가 함께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여부가 잘되기 위해서는 과회장과 과여부 단여의 3주체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과여부가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르고 과여부 또한 연계를 제대로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과여부가 과학우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름만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여에서도 과여부의 고민을 함께 하지 못하고 단여사업을 풀어내는 단위로만 인식하는 경우나 단순히 과여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 구호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2. 과여부의 지위 역할

과여학생부는 여학우들의 존재적 특성에 나타나듯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고 있는 여대생들이 중첩되는 억압을 깨어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한다. 이속에서 여학우들은 과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여학우들의 생활적 요구, 존재적 특성에 기반한 학문적 요구등 학우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지점적으로 대변하는 곳이 바로 과여학생부이다.

ㄱ) 지위

-과내의 집행부서이다. 이속에서 과사업을 여학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여학생부는 과내의 다른 부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라 했을 때는 하나의 집행부서로서 과 학생회로 학우들을 다양한 내용으로 묶어내며 학생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과와 통일적으로 사업을 풀어내는 것이다 차이점은 과여부의 자기 내용의 특수성으로 하여 과학우를 전체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 과여학우의 이해화 요구를 받아안은 단위다.

통크게는 과에서 여학우의 이해요구를 실현하는데 앞장을 서야한다. 단순히 여학우의 권익부만은 아니라 과내에서 여학우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고 여학우를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워내기 위하여 전체 학우들과 함께 전개하여야 한다.

- 총여, 단여, 과여부의 체계속에서 과여학우의 자주적 이해요구가 단여와 총여로 모아질수 있도록 하며 총여 단여의 사업의 성과가 과학우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4) 역할

- 여학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학우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한다.

어느과에서는 책을 대여하면서 과학우들과 여성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어느과에서는 토론을 함께하는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다. 보다 여학우들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어떻게 살것인가의 방향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공동체적인 문화를 우리 여학우와 만들어야 한다.

과여학우 모임, 과여부원들의 모임, 탁아소 방문학우들의 모임등. 우리 여학우들이 집단속에서 사회성을 얻게 하는 것들과 과내에 베드멘틴체를 구입하여 우리 학우들이 생활속에서 공동체문화를 익히게 하는 방법, 체육대회속에서 보다 다양하게 우리 여학우들이 묶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이다.

- 여성문제를 과학우와 함께 풀어내야 한다.

여성문제는 여학우들만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학우의 삶을 왜곡시키기도 하며 여학우들만이 풀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보다 더 과학우들과 함께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내오는 것이 중요하다. 각 대학의 과들을 보면 현재에도 비디오 상영, 책 대여, 여학생부 주체로 과학우들과 함께하는 사업속에서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다.

과여부의 임으로의 과제

7) 여부장님의 여성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여부 사업에 대한 치열한 고민.

어떤 일이고 처음 시작하는 일은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나 과여부의 정형이 창출되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과여부의 정형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과여부장들이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여학우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어떤일을 해야할지 막막하면 지치고 힘들어진다. 이럴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는 자세,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ㄴ) 여부원, 소모임등으로 여학우들을 묶어내어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한사람의 힘이라도 우리의 길에는 더욱더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 일년을 마치면 여부장님 혼자 계시는 것이 더욱더 지쳐버린다. 과여부의 역사가 깊거나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곳은 여부장님 주위로 과여부원이나 소모임이 존재한다. 여부원이나 소모임이 존재하지 않는 과는 하루 빨리 모임을 꾸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존재하는 과의 경우는 느슨하게 생활하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잊지 말자.

ㄷ) 자기과에 맞는 사업의 내용을 찾자.

우리과 여부의 중심 사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 보다 다양한 내용과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해보고 과여부나 여학우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도를 내오자. 커다란 사업이 무리가 되는 과가 있다면 과안에서 베드맨턴 채 구입, 여학우 생일 챙겨주기, 한주 혹은 한달에 한 번 언어정화운동 또는 음담패설 없애기, 대학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천과제 내오기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고민을 해보자.

ㄹ) 과 단여의 유기적인 결합

과여부장과 과회장 단대여회(부)가 유기적인 결합을 해들어가며 총화를 잘하고 여부의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과여부장은 과회장과 단여의 지도를 받으며 보다 풍부하게 사고할수 있도록 하자.

모범 사례

경북대의 경우

인문대

과여학생회에 집행부가 마련되어있다. 주로 회장, 총무기획부장, 탁아부장, 여연부장, 홍보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학생회 산하기구로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과 탁아소모임이 있는 과도 있다.

모범 사례①

과여학생회의 1년 총노선과 사업계획서 작성: 월별로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올 한해 꼭 해야하는 일을 정리하는 형식이다.

모범사례 ②

과소식지 발간 : 철학과 여학생회에서 처음 시작하여 인문대 몇개 과여학생회에서 과여학생회 소식지를 1학기에 1번 혹은 1년에 한번씩 내고 있다.

모범사례 ③

세미나, 강연, 성교육 간담회 개최: 과여학 자체 행사로 여성학에 대한 세미나나 강연을 준비하고 있고 강사분을 초빙하여 과학우들과 함께 성교육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함.

모범 사례 ④

비디오 상영 : 과학우들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기위해 과방에 비디오를 설치하여 여성문제를 다룬 영화를 본후 감상문 모집및 간단한 설문조사 실시.

모범 사례 ⑤

여학생 대면식 : 3월이나 4월경 과여학우들이 한테 모여 여성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여학우간의 친목 다짐

전남대의 경우

총여학생회의 주도로 과여발특위(과여학생부 발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

주체: 총여 부회장

목적:

과여부의 정형창출로 모범단위 전파.

총여의 직접 결합으로 과여부의 지도력 강화

현재 진행 상황:

과여발특위 자체 출범식을 치루었고 일주일 혹은 2주일간의 정기적 모임을 가져가고 있음.

현재 12개과 정도의 과여부장님이 결합.

내용으로는 여성학습과 과여학생부의 사업 총화와 토론, 모범전과 단여와의 결합지점 고민.

서여대협 산하 해방광운 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여학생회

93년 전산과 여학생 총회에서 여학생부에서 여학생회로 체계발전을 할 것을 결정한후 94년 전산과 여학생회는 1대 전산과 여학생회로 활동을 하였다. 1대에서는 여학생회로서의 위상정립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여학일꾼의 부족으로 활동이 미약하고 전산과 학우 대중과 폭넓은 공유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2대에서는 전산과 여학생회의 위상정립에 중점을 두면서 활동의 상을 그려 나갔다.

사상적인 측면

-아직까지 여회가 가지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여학생운동에 관한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사업을 풀어나감에 있어 큰 줄거리가 없고 발전적인 성과물을 찾지 못하였다. 즉 단편적인 여학생운동에 대한 감과 변혁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이 아닌 단편적인 여성문제로서 여학생운동을 바라보게 되었다.

조직적인 측면

◆학번모임의 상시화-학년별로 학번모임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고 학년여대표를 뽑아 여회대표자회의(여회 중운위의 성격)를 한다. 자체적으로 모임의 성격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여대표의 활동역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나름대로 상시화하려고는 하나 학번이 내려갈수록 여학우의 수가 증가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내용을 가지지 못하여 모임이 발전적이지 못하고 친목모임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게 되는 한계를 가진다.

◆여대표회의의 상시화- 여대표회의는 각 학년의 이해와요구를 수렴하고 여학생회의 의결기구이다. 학번모임에서 학년여대표를 선출하고 학번모임주체로서 활동한다. 2대에서는 집행부의 인선하여 집행과 의결을 분리하고 여회 최고 운영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여대표회의를 통해 학번모임을 지도하고 여회의 움직임 알려나기기도 했다.

◆여성학 세미나 조직과 교사모임-1학년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학습체계로서 여회가 조직하고 지도해나간다. 여성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나 커리의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각 팀마다 내용적인 통일이 없다.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사모임을 제기하고 주체를 세워-여회 학술주체-풀어나가고자 했으나 많은 한계로 인해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여회 집행부 인선-회계계를 조직적으로 묶어내고 사업의 집행을 원활히 풀어나가기 위해 집행부를 인선하였다. 하지만 집행부의 위상이 회칙에도 근거하지 못하고 여대표와 집행부의 관계,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점이 많이 존재하였다.

대중적인 측면

●새터 새내기 간담회와 상황극-새내기여학우와 재학생들이 모여 서로 상견례를 하고 친목도모와 여회를 알리는 자리. 상황극에서는 학내에 잘못 인식된 성폭력에 관하여 남,녀학우들이 같이 고민할수 있는 자리였다.

●새내기 맞이 상견례-새내기과 재학생 모두가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여학우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였다.

●여학생 개강총회-2대 전산과 여회의 나아갈 방향과 회칙 개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

●총여학생회 해오름제

●여학생 체육대회-남성중심의 학교분위기에서 여학우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해주는 자리였다. 열심히 해서인지 가을 연춘체육전에서 모든 부문을 휩쓸기도한 쾌거를 가짐.

●대동제-두레방 빵,목걸이 판매, 기지촌의 현실에 관한 선전거리를 준비하여 민중여성과 연대, 학우들에게 알려나가는 자리였다. 페미니즘 영화제를 준비하여 영화 속의 여성을 볼수 있는 기회.

●기지촌 활동 -총여와 연계하여 기지촌 여성들과 같이 생활하며 그분들을 이해할수 있는 장.

●여학생 귀향제-졸업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고 취업한 선배들로부터 사회생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확인할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졸업후에도 진행되는 학번모임 이야기, 재학생들의 생활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장.

●공개 댓거리-여성학 세미나의 성과점으로 많은 학우들과 매춘실태에 관하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여학생회 종강총회-한해를 평가하고 차기 회장님을 선출하는 자리.

이외에도 많은 과여부의 모범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총화하지 못하였다. 올해 일년 사업을 전개하면서 보다 많은 과여부의 모범을 창출하였으면 한다.

전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
대표자 명단

의장 김유경
(93 경성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서울지역

의장 임은지
(93,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동부지구

의장: 임민희
(93 한국외국어대학교 여학생위원회장)
건국대학교 최진희(93)
경희대학교 박진희(93)
광운대학교 김근화(93)
시립대학교 이현희(94)
한양대학교 미선출
산업대학교 미선출

서부지구

의장: 김은정
(홍익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경기대학교 곽현영 (93)
명지대학교 양은영(93)
연세대학교 신유정(93)
감리교 신학대학교 심경식(93)
서강대학교 미선출

남부지구

의장: 오정은
(92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단국대학교 한근화(93)
동국대학교 서정은(93)
중앙대학교 이선영(93)
성공회신학대학교 박현춘(93)
총신대학교 오은주(93)

북부지구

의장: 장윤주
(93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국민대학교 이경애(93)
서경대학교 윤지혜(93)
한성대학교 유광진(93)
고려대학교

경인지역

경인남부 **의정** 허은

(93 중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인부

인천대학교 박은주 (93)
서울신학대학교 이정화 (93)
인천전문대학교 최주희(94)

남부

경기대학교 최정희(93)
성균관대학교 엄현주 (93)
아주대학교 김진선(93)
중앙대학교 장희(93)
한양대학교 윤지영(93)
안양대학교 임선희(93)
협성대학교 황하숙(93)

동부

명지대학교
용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형인()
강남대학교 최임선 (93)
경원대학교 서명희
경희대학교 유정인

충청지역

대전지구

과기대학교
목원대학교 강민영
배재대학교 전미순
산업대학교
침신대학교

대전대학교

충북지구

청주대학교 박혜정
충북대학교 김순영
건국대학교 오년희
서원대학교 박영미
충주산업대학교 김진순(위원회장)

충남지구

공주대학교 김현순
단국대학교 차경애
고려대학교 정유리
순천향대학교 유영순

대구경북지역

의정 최이향

(92 경북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경북대학교 조진미(92)
영남대학교 이동희(93)
상주산업대학교 류윤미(94)
경산대학교 박현정(92)
안동대학교 박동아 (93)
동국대학교 김정희(92)
계명대학교 장문희(93)
금오공과대학교 박유진(93)
대구대학교 김다정(93)
영남신학대학교

부산경남지역

의장 김미화

(93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경남대학교 정은정(94)
창원대학교 배순임(93)
인제대학교 서윤경(93)
동아대학교 오미영(93)
경성대학교 홍지영(93)
수산대학교 김은복(94)
울산대학교 배현영(93)
부산대학교 김은하(93)
경상대학교 양미경(93)
부산외국어대학교
창신전문대학교
창원전문대

조선대학교 박미라(92)
호남대학교 박경미(9)
광주대학교 최선영(
목포대학교 박순희(93)
순천대학교
목포전문대학교
초당산업대학교
동신전문대학교

제주지역

제주대학교 홍창희(93)

전북지역

의장 이미정

(92 전북대학교 여학생위원회장)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강소연
진주대학교 이용경
군산대학교 김은수
전주한일신학대학교
전북산업대학교 임민영

광주전남지역

의장 박현정

(92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전남대학교 김경명(92)